

도서관 평화 나누기

#경기도 파주시 #평화 특화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평화도서관에는 언제나 푸근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 위로 받고 싶을 때,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 갈 곳이 없을 때... 품어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자연이 품어주죠. 맞은편 파평산의 초록과 아카시아 나무와 꽃, 가을마다 푸짐을 선물하는 밤, 불어오는 바람, 머리까지 상쾌해지는 공기, 맛있는 빵과 차, 이 모든 자연이 품어준답니다.

평화의 개념을 어느 곳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곳입니다. 아픈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알고 우리의 아이들이 알아 더 이상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예방주사를 맞는 곳입니다. 책으로, 영화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건물이 주는 편안함과 따뜻함도 있습니다. 당장 오고 싶으시죠?

오늘도 평화도서관은 평화를 품은 집입니다. 도서관이 있는 곳이 평화랑 관련된 지역이고, 평화에 녹아든 많은 아픈 이야기들을 품지 않으면 사람들이 힘들어 해서요. 오시는 분들을 품는 장소이고 싶습니다.



특화지원사업과 함께한 평화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평화도서관의 특화는 2017년보다도 훨씬 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9년, 제주를 찾았다가 제주4·3 평화기념관 한 귀퉁이에서 근대 100년 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 지구 곳곳에서 수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노사이드와 학살 관련 자료 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학살 사건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100년 동안 2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해 왔더군요. 제가 알고 있던 건 세계사 시간에 암기했던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비롯한 몇몇 사건뿐이었습니다. 이때 느낀 충격과 반성의 연결 선상에서,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남북전쟁의 지리적 시작점인 38선과 휴전협정으로 그어진 분단의 경계 휴전선 그리고 항상 긴장이 감도는 DMZ가 인접한 파주에서 대량학살 문제를 통해 평화를 이야기하자고요.

‘제노사이드로 가는 증오의 피라미드’ 이론에 의하면, “제노사이드와 학살, 전쟁 등 반평화적이고 끔찍한 사건들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편향적 사고나 사소한 편견과 차별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갈등과 분쟁, 폭력의 과정을 거쳐 전쟁, 제노사이드로 이어”지지요.



평화를품은집은 그 이론에 착안하여 평화 관련 도서, 영상물을 두루 갖춘 평화 전문 도서관과 국내외 학살과 제노사이드 사건의 원천 자료를 갖춘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평화적 관점에서 수집한 도서, 영상물 및 제노사이드 자료들은 평화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며, 유아부터 청소년 대상의 단계별 평화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평화를품은집은 서로가 사는 곳이 다르고 역사와 문화, 종교도 다르지만 서로의 차이와 다름이 인정되는 세상, 인간의 존엄성이 기본이 되는 세상,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나로 인하여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평화’ 특화를 해오다 2017년에는 특히 특화지원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 관련 자료를 모아오면서 예산이 없어 진행하지 못해 안타까웠던 자료 번역 일들을 특화지원사업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료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자료들을 번역함으로써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습니다.

평화도서관은 사실 번역비에 대한 지원이라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너무 많은 양이 누적되어 있던 터라 어느 책부터 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죠. 예상했던 것보다 번역비가 높아서 처음 예상했던 번역의 양보다 적어서 애를 먹기도 했고

요. 또한 평화도서관의 필요해결은 아주 높은 시간이었지만, 도서관 이용자까지의 확대 사업은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기회였고, 천천히 계획을 세워 나가려 합니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평화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2017년 한해는 번역만 열심히 했으니 2018년에는 프로그램 연구를 하려 합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특화지원사업을 계기로 진행했던 번역을 2018년에는 제대로 읽을 수 있게 편집과정을 거치려 합니다. 평화도서관은 출판사업도 함께 하고 있어 책으로 발간할 예정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장되었답니다. 제노사이드 관련 책은 대중적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출판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서관 책에 대한 구체적 배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키워드를 좀 더 세분화 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준비 중입니다. 또한 제노사이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를 한눈에 알려줄 수 있게 북큐레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천천히 일반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특화를 고민하는 다른 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특화를 권하고 싶습니다. 파주는 도서관 정책이 잘 되어 있어 중형의 도서관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서는 특화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만화도서관, 여행도서관, 생태도서관, 만들도서관 등 주제에 따라 아주 재미있는 도서관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특화를 고민했던 평화도서관 활동가들 스스로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린 외롭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지금이 최선입니다.



2017 특화지원사업을 통해 평화도서관이 번 역한 목록

1. 짓밟힌 아르메니아 [번역 이유]

· UN에서 인정한 첫 제노사이드 사건인 아르메니아 대학살! 1915년부터 러시아가 오스만제국을 몰아낸 1923년 까지 아르메니아인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제노사이드 교육이나 안내를 하려면 제노사이드 첫 사건인 아르메니아를 빼놓을 수가 없다. 하지만 국내엔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다룬 책은 단 2권뿐이다. 이 책 『짓밟힌 아르메니아-아르메니아 대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16세 소녀 마르디가디안의 이야기』를 번역 해 당시의 아르메니아 학살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아르메니아 대학살이 이후 발생한 제노사이드에 어떻게 연결 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활용 계획]

- 초등 고학년 이상 중등, 일반인에게 아르메니아 대학살에 대한 읽기용 교육 자료(제노사이드와 평화)로 활용할 예정
- 평화를 품은책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도 출간할 예정

2. 그들은 가장 먼저 아버지를 죽였다

[번역 이유]

· 캄보디아 킬링필드는 제노사이드 4번째 사건이고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지만 킬링필드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알려 준 건 30년 전에 나온 단 한 편의 영화 《킬링필드》였다. 뿐만 아니라 킬링필드를 우리말로 번역한 책도 뚜엥슬렝 비밀교도소 소장 두크의 재판 과정을 다룬 책 『자백의 대가』 한 권 뿐이다. 1975년 4월부터 1979년 1월 까지 캄보디아인 킬링필드를 6-9살 소녀의 눈으로 다룬 소설 형식의 책 『그들은 가장 먼저 아버지를 죽였다-킬링필드』

드에서 살아남은 한 소녀의 기억』을 번역 해 당시의 캄보디아인 학살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제노사이드와 같은 끔찍한 방법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고자 한다.

[활용 계획]

- 초등 고학년 이상 중등, 일반인에게 1975년 폴포트와 크메르 루즈가 저지른 학살 행위에 대한 읽기용 교육 자료(‘제노사이드와 평화’)로 활용 할 예정
- 평화를품은책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도 출간 할 예정

3. 편견 및 괴롭힘에 대한 교육 1권, 2권, 3권

[번역 이유]

- 인지 발달 과정에 맞는 체계적인 평화 교육 교재가 없는 국내 현실
- 국내 평화 교육 교재를 만들기 위한 참고 도서로 삼음

[활용 계획]

- 초등용 평화 교육 교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진행 과정과 방법을 벤치마킹함
- 유치원-5학년 대상 평화 교재 참고 도서로 삼음
- 초등 6학년- 중등 대상 평화 교재 참고 도서로 삼음

4. 수단 다르푸르 제노사이드

[번역 이유]

- 국내에 수단 다르푸르 대학살에 관한 교육 자료가 없음

[활용 계획]

- 중등 이상 대상의 제노사이드 교육 교재로 활용할 계획
- 인식과 행동에 대한 평화 교육 교재로 활용

5. 아메리카제노사이드

[번역 이유]

- 국내에 북아메리카 대학살에 관한 교육 자료가 없음

[활용 계획]

- 중등 이상 대상의 제노사이드 교육 교재로 활용할 계획

6. 난징 대학살 커리큘럼 1, 2

[번역 이유]

- 국내에 난징 대학살에 관한 교육 자료가 없음
- 제노사이드의 원인이 되는 편견과 차별이 일본 제국주의와 난징 대학살에 어떻게 연결 되어있는지 알게 함
- 난징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읽기용 자료, 영상자료, 구체적인 활동 자료 등) 전달하고 제공

[활용 계획]

- 중등 이상 대상의 제노사이드 교육 교재로 활용할 계획

7. 배려는 변화를 만든다

[번역 이유]

- 국내에 인지발달에 맞는 체계적인 평화 교육 자료가 없음
- 다름과 차이, 편견, 차별, 우정, 존경, 관용, 용기 등 유치원생부터 초등 4학년생까지 각 레벨에 맞는 학습 목표에 따라 관련 책과 영상물을 참고 자료로 삼은 이 책을 번역, 참고해 국내용 평화 교육 자료를 만들

[활용 계획]

- 유치원 이상 초등4학년 대상의 평화 교육 교재로 활용할 계획

